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배려 넘어 ‘우선’으로” 균형발전 강조한 추... 지방 정책 탄력 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등지급 등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과제 중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국·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맞아 기자회견 "핵심과제 중 하나는 지역균형발전" 의지 예산배분 지역별 가중치...영향 분석 의무 소비쿠폰 "재분배 효과"... 추가 지급 관심

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번 강조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역균형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집중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지방에서 수도

권을 이동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흐름 같다"면서도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종의 '가중치' 산정

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정선, 전북 무주 같이 인구소멸 정도가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부여해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대 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소득별로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각각 1인당 3만원, 5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2면에 계속>

/뉴스시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시청비즈니스룸에서(좌)오아시스스튜디오, (우)루이웍스미디어와 투자진흥지구유치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제공

광주시, 수도권 콘텐츠기업 잇따라 유치 오아시스 스튜디오·루이웍스미디어 협약... 일자리 90개 창출 광주콘텐츠허브에 분사·자회사 설립... 콘텐츠 거점도시 도약

광주시가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 유치를 잇따라 성공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개 콘텐츠기업이 광주에 동지를 틀었고 올해에만 다섯 번째 유치 성과다.

광주시는 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 오아시스스튜디오, 글로벌 예능 제작사 루이웍스미디어와 투자진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전일빌딩 245 5층에 있는 광주콘텐츠허브에 분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총 90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청년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 유치를 잇따라 성공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개 콘텐츠기업이 광주에 동지를 틀었고 올해에만 다섯 번째 유치 성과다.

광주시는 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 오아시스스튜디오, 글로벌 예능 제작사 루이웍스미디어와 투자진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전일빌딩 245 5층에 있는 광주콘텐츠허브에 분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총 90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청년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광주콘텐츠허브에 유치된 큐로드는 70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다. 이번 협약을 포함하면 총 16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GCC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실무형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결합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중에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콘텐츠 인프라, 전문인력, 정책지원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도시"라며 "이번 유치기업들이 광주의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시는 해당 기업들에게 행정지원은 물론 세제·입지 특전(인센티브), 문화콘텐츠 기반시설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유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콘텐츠기업 유치 전략의 성과로,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며 광주가 콘텐츠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아시스스튜디오는 2022년에 설립된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으로, 디즈니+ '커넥트', 넷플릭스 '종의 집 Part 2', JTBC '나쁜 엄마'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주목받은 VFX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6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루이웍스미디어는 '피지컬:100',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예능콘텐츠를 제작해 온 기획·제작 전문기업으로, 본사를 광주로 옮기고 3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면안내

-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계 '소·남발, 경영권 흔들' 우려 3면
- ▶ "겨울왕국 온 것 같아요" 빙상장서 쟁점더위 이겨낸다 9면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하나

기타

고향사랑e음 바우처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